

전북의 매력 발굴 '박차'

캠버리콘텐츠 모니터단 활동보고회 열어... 14개 시·군 44개 프로그램 검증

전북도는 지난 29일 캠버리콘텐츠 모니터단 활동보고회를 열어 그간 발굴된 44개의 프로그램을 꼼꼼히 검증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전북의 매력을 담은 캠버리 프로그램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스카우트 본부와 전북연맹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들과 공조해 도내 관광,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관 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콘텐츠 모니터단을 운영해왔다.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4개 시군의 캠버리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단 활동 보고회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서은배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장과 민간 모니터단 23명, 해외 스카우트 여성가족부와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모니터단 참가자들은 각 시군 캠버리 담당자들과 현장

을 동행하면서 직접 체험한 시군별 자원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캠버리 과정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옥마을, 근대역사문화, 관현루 등 도시탐방 프로그램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스카우트 전통적 기술을 도입해 '도시보물 오리엔티어링'으로 제안했다.

또한, 부안 위도, 무주 태권도원 체험 등은 캠버리 기간내 다른 곳에서 캠프하는 캠프 속의 캠프 운영 장소로 제안되기도 했으며, 지역간 연계프로그램, 다국어 안내판 설치, 재방문 기획사업, 해설사 배치, 시민 기본회화 학습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외에, 전북연구원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14개 시군의 문화·관광·체험 자원을 2023 새만금 캠버리의 4대 목표(개척, 첨단과학, 안전, 친환경)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도록 캠버리 영의과정 콘텐츠 개발해야 한다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교수이며 북미세계캠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조슈아 커비는 지난 7월에 열린 북미캠버리의 프로그램 기획위원 등을 설명하며,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전달했다.

총평에 나선 한국연맹 서은배 부총재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교육적이며, 즐겁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 같다"라며 "전라북도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과정활동 프로그램이 2023년에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모니터단 활동을 평가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굴, 인프라 설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프로그램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농촌 및 민박지원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검증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방역활동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연맹 노동조합원들과 총남 홍성군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파의 첫걸음 내디더

전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영성회의실에서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 규제혁파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는 전북도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예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도, 민간·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30명 규모의 자문·협의기구이다.

특히 민간·단체 분야 위원으로는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위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 위원들이 도정정책에 '참여' 개념이 아닌 규제개혁 공동주체로서 함께하는 '협업'의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 30명을 지명·위촉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운영방향 및 도 규제 개혁 추진상황 설명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들의 규제개혁

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참석위원들의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공동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협업과정에서 '민'과 '관'이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도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민간주도형 앵커기업, 바이어 러브콜 쇄도

수출계약 · 견적요청 잇달아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들이 국내외 바이어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전북도와 생원원에 따르면 이들 참여기업은 전북도가 주력산업분야 지역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에 확보해 선정됐다.

도는 핵심역량을 갖춘 타깃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해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앵

커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과 참여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 납품계약 체결 등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북의 민간주도형 앵커기업 10개사는 지난 20~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ood Week 전시회에 참가해 5억 9천만원의 납품계약과 함께 41억의 계약잔량 실적을 냈다.

이런 전시회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웰빙 식사대용식 제품인 '미시는죽'을 생산하는 두순푸드가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2억5천만원의 대형 유통사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간편편의음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만선영역

조합이 2억1천만원의 흡소필 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어의 계약상담이 줄을 이었다.

또 해외바이어의 수출상담도 이어져 유자차를 생산, 수출하는 고려자연식품은 미국, 호주에 8만달러, 고추씨체를 생산하는 대풍년은 5만 달러의 샘플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대량물량의 본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가능성 천마제품을 생산하는 무주군 약초영농조합, 수련소면을 생산하는 은성푸드, 간편 포션음료를 생산하는 3엔에프, 과제음료를 생산하는 팜조아, 3색 칼라보리를 생산하는 청맥, 웰빙저탄을 생산하는 효송그린푸드 등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납품 가능 여부와 견적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창업기업 발굴 '핀테크 멘토링데이' 성료

전북도는 지난 29일 전주 웨딩의 전당에서 핀테크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전북 핀테크 멘토링데이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핀테크 멘토링데이 행사에서 혁신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투자, 법률, 회계 등 분야별 1:1 순환 멘토링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전북도와 한

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북도 초기 핀테크 기업의 사업 구체화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 3월에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금융회사, IT기업, 유관기관, 정부의 지원과 역량을 결집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전문분야 지식과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들과 혁신분야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투자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보유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합적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에 경제통상진흥원은 체계적인 멘토링 진행을 위해 사전 접수를 실시하고 신청분야의 자문 요청사항을 토대로 상담 타임스케줄 운영과 현장매칭을 병행하였으며,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소비자가 중심인 사회, 세상을 바꿉니다'

전북소비자 대회 열려... 주권실현 의지 다지는 화합의 장 소비자 역할에 대한 특강·권익증진 유공자 23명 표창 등

전북소비자대회가 지난 2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도내 각계 각종 소비자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전북소비자대회'는 올해로 22번째로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전북지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격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 대회는 '소비자가 중심인 사회,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역할에 대한 특강에 이어 지역별 소비자 보호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의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에 선정된 유미옥씨(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52세), 건전 소비자생활 체험수기 수상자 도민 하규빈씨(전주, 59세) 등 소비자 주권 실

현 마련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 대하여 표창 수여와 농촌지역 이주하학생(원주중 1학년) 등 12명에게 각 최대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간 전북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대상으로 적합한 소비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문 소비자리더를 양성하여 고령자대상 기반상술예방을 위한 경로당 순회교육, 다문화가족 역할극 교육, 대학생 소비경제 멘토링 등 매년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각종 피해를 예

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등 지역내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소비자교육 체험관'을 운영하여 유치원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색있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기술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현명하고 책임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